

**◀하나님! 나의 하나님▶삼사십대 남자가 오십이 되기 전에 배워야 할 것들**

▶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지퍼 열지 않기  
급하다. 아이들은 자라나고 아내는 졸라대고 주변의 친구들은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입구부터 지퍼를 내리며 들어가거나 지퍼를 올리며 화장실 문을 나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한다.  
부지런함과 서두름이 구분되어야 할 시기이다.

▶ 누가 아저씨라고 부를 때 기분 나빠 하지 않기  
포기 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 더 이상 오빠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젊음만큼 연륜도 멋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 가지 근사한 것은,  
남자는 나이 들어도 멋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 허리띠 구멍 늘리지 않기  
사십 이후에 허리띠 구멍을 늘리는 사람은 자살을 앞둔과 같다. 지금의 몸무게를 무덤까지 가져갈 각오를 해야 한다.  
건강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 얼굴에 미소 주름살 만들기  
남자가 한 얼굴로 사십년쯤 살다보면 얼굴에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  
그 성품을 잘 관리하면 이십대 남자보다 더 멋져 보이게 할 수도 있다.

▶ 고전을 다시 읽어 보기  
혹시 이미 옛날에 읽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읽어야 한다. 언젠가 이름을 들어 본 것 같은 책을 하나씩 다 읽기 시작하면 왜 이런 책을 중, 고등학교 때 읽고 잊었을까 아쉬워 할 것이다.

▶ 과자 사들고 집에 들어가기  
과자로 아이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이다.  
오십이나 육십 되어 자녀들의 환심을 사려면 차를 사주거나 집을 사줘야 된다.



**◀그뎌 그랬지▶ 박혜령의 "검은 고양이 네로"레코드판**  
'♪그대는 귀여운 나의 검은 고양이....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어느 날, 양칼진 듯한 여자 어린 아이 목소리의 '검은고양이 네로'가 전 국민의 입에서 흥얼거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7곱살 정도된 여자 아이 '박혜령'의 빈틈없는 듯한 목소리, 그러다 '야옹'이란 고양이 울음을 흉내 내는 것으로 끝날 때는 이슬같은 해맑음이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잘 살자는 구호아래 앞만 보고 내 달던 그때, 때 묻힘 없는 목소리의 동요같은 노래가 잠시나마 우리들을 순수함으로 물 들였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49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12월 7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인생의 10대 위로자**

- 1). 하나님(고후1:3)\*\*\*"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 2). 예수 그리스도(고후1:5)\*\*\*"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 3). 성령님(행9:31)\*\*\*"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 4). 주의말씀(시119:50)\*\*\*"나의 곤난 중에 위로라..."
- 5). 복음 전도자(고후1:6)\*\*\*"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라..."
- 6).아내(창24:67)\*\*\*"리브가 를 인도하여...위로를 얻었더라.."
- 7).자식(렘31:15)\*\*\*"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 8).천사(행27:23~35)\*\*\*"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 9).믿음의 성도(살전3:7)\*\*\*"너희 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 10).자신 스스로(시119:52)\*\*\*"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 하고 스스로 위로 하였노라"

**엄마가 딸에게**  
여성된 맴씨를 위해  
신경을 쓰고  
인간된 맴씨를 갖기 위해서는  
고민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열등감, 거만함,수동적인  
사람에게는 기대할게 없다  
너는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되라

